

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	이름	
파견국가	일본	파견도시	오사카
파견대학	OSAKA GAKUIN UNIVERSITY	파견기간	2017.08~2018.05
귀국여부			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전철은 약 10분간격으로 운행하며 우메다에서 약 20분거리에 위치, 쇼자쿠 역 도보 5분거리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.</p> <p>학교의 규모는 넓은 것 같지만 국제센터 내 시설은 꽤 낙후되어 있었습니다. 컴퓨터는 옛날 윈도우98같은 성능으로 부팅과 읽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. (*대용량하드는 인식못함)</p> <p>교내 와이파이의 경우 유튜브는 되는 듯 하지만 그 외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없어 과제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야 할 듯 합니다.</p>
2016-2학기 수업	<p>본인이 수강한 과목,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. 예) 수업내용, 수업방법, 과제, 수업준비, 추천과목, 비추천과목 등</p> <p>1. JSL (마쓰다 교수님) : 유학생 필수과목으로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한자, 문법의 반이 나누어지며 강의시간은 매일 오전9시~11시10분까지입니다. 수업 진행은 월요일 경어, 화요일 한자&문법, 수요일 스피치, 목요일 문법, 금요일은 스피치&작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.</p> <p>2. 비즈니스 일본어(이소미 교수님) : 비즈니스에 필요한 경어와 메일 쓰는 법을 배웠지만 먼저 메일을 교수님께 보내고 수정을 받는 식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</p> <p>[학부수업] 이벤트 산업론 (3학점) 수강인원보다 출석률이 많이 낮았음에도 떠들거나 수업도중 나가 출석체크 할 때 돌아오는 등 대체로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. 수업은 프린트물로 진행되며 시험은 발표로 대체하는데 워드로 최소 3장</p>

	<p>이상, ppt가 아닌 인원수대로 프린트물을 출력해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. 발표만 하면 무조건 s를 주셔서 시험보다 발표가 좋은 분에게 추천드립니다.</p>
프로그램 운영	<p><i>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</i> 예) 오리엔테이션,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상담 프로그램 등</p> <p>참여 프로그램은 많이 있었지만 국제센터에서 지원하기보단 일본인 버디들에게 모든 걸 떠넘긴 느낌입니다.</p> <p>국제센터에 대해선 모든 직원을 갈아치우지 않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투 하나하나가 사람을 열 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.</p> <p>대학 축제는 개인적으로 느낀 바, 구경하는 건 좋지만 참가하는 건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데, 자세한 이유는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<i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i> 대략 5월~10월까진 습하고 더우며 겨울은 한국보다 따뜻해서 코트만 입어도 버틸 만 했습니다.</p> <p>날씨가 따뜻해지면 벌레가 기승을 부리는데 밤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방충망 틈 사이로 수컷개미 또는 날벌레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. 모기도 4월쯤부터 나타나는 듯 합니다.</p>
안전	<p><i>현지 안전 상황</i>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, 아이카와역 주변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이 뜸해 어두운 분위기라 밤에는 살짝 무서운 감도 듭니다.</p> <p> 시내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끔 이상한 놈이 치고 가거나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기분은 상당히 더럽기에 여성분은 밤 늦게 다닐 때 핸드폰을 보면서 걷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</p>

<p>숙소</p>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) 외부 숙소(o) 기타()</p> <p>기숙사 이름,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아리야마가 운영하는 맨션 중 하나인 티파니1 31호에 살았습니다.</p> <p>창 2개가 동쪽과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와 여름엔 살짝 덥지만 티파니1 내 다른 방보다는 살기 편한 듯 합니다.</p> <p>단점으로는 욕조 하수구에서 나방파리가 나왔는데 락스를 뿌리니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았고, 그 외에는 베란다 방충망 사이로 벌레가 들어오고, 세면대나 변기에 유독 곰팡이가 잘 낀다는 점입니다.</p> <p>대체적으로 타카오카 상(타이완, 미국인 등 한국인은x)의 집과 비교했을 때 월세가 같음에도 3배 이상 좁은 집 이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정도 입니다.</p> <p>한국인 여학생은 다 아리야마와 계약했는데 한 번은 같았나 싶은 더러운 벽지와 군데군데 코팅 벗겨진 바닥재, 유학생들이 놓고 간 이불은 무료로 수거해 1500엔에 대여를 해주고 문제가 있어도 황당할 정도의 대처로 전혀 도움이 안되기에 기대는 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</p> <p>Ex. 악세라의 한 방에서 비가 올 때 물이 새는데 바가지만 주고 가거나 다른 방에선 냉동실 냉각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물이 떨어지는데 해결해 준다는 게 고작 온도를 최저로 낮추고 가는 것 뿐이라 아이스크림이 전부 녹을 정도였습니다. (나중에 또 항의하니 다른 방에서 냉장고를 가져다 교체해줬습니다.)</p>
<p>식사</p>	<p>학교 Meal Plan () 학교식당 개별이용 (o) 홈스테이 ()</p> <p>외부식당 (o) 직접 요리 (o) 기타 (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점심은 주로 돈돈이나 편의점, 학식으로 해결하였는데, 학식이 제일 저렴하지만 메뉴가 거의 동일하기에 쉽게 질리는 편이며 전 학기와 비교해 짠 맛이 줄어든 듯 합니다.</p> <p>저녁은 주로 학교 근처 '프렌즈마트'나 '사타케'에서 장을 봐서 먹는데 양파는 프렌즈가, 고기는 사타케가 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.</p> <p>오전에는 유통기한 임박식품 30~50%세일을 하기에 학교 끝난 후 가면 종종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. 아이카와에 사는 사람은 15분 거리에 간사이슈퍼도 있어서 고기는 비싸지만 저녁 6시 이후 튀김류, 과일, 도시락 마감세일과 목, 금에는 아이스크림 세일을 해서 종종 사갑니다.</p>

교통	<p><i>통학방법, 시내교통, 주요도시 이동 관련</i></p> <p>전철 통학으로 아이카와 기준 3분 소요, 우메다까지 220엔이기에 쇼핑할 땐 항상 우메다로 갔습니다. 난바까지는 한 번에 갈 수는 있지만 편도 440엔이라 살짝 부담되는 정도, 교토 가와라마치까지는 370엔으로 1시간정도 걸려 접근성으로 봤을 땐 괜찮다고 봅니다.</p>
----	---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편도 130000원	
Fees	없음	
<i>보험료</i>	유학생보험(삼성) 약 28만원 국민건강보험 월 2000엔정도	건강보험은 5~6월은 없기에 4월분까지 12000엔 한꺼번에 편의점으로 이체
숙소	월 42000엔	
식비	월 약 40000엔	
교통비	월 1650엔	아이카와-쇼자쿠 3개월 학생 정기권 4950엔
책값	약 8000엔	문법, 한자책, 선택수업 n1책 2권
기타1	22800엔	USJ 연간패스
기타2	월 3~4000엔	전기세, 가스비 합
합계	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마트에서는 교토나 니이가타 산이 많으니 만약 남부지방 쌀을 먹고 싶다면 아마존에서 5kg 2000엔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. 저는 '쿠마상노 모리' 라는 쌀을 주로 먹었습니다. 라쿠텐은 편의점 이체 시 200엔의 수수료가 있지만 아마존은 수수료가 없고 합산배송 시 일정금액 이상이면 배송도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추천 드립니다.

카드는 꼭 인출 수수료 적게 드는 걸로 만들어 오는 것이 좋습니다. 국민카드 쓰다가 수수료 때문에 피눈물 나와요. 저는 '오유모' 카페에서 기준환율로 주로 우메다나 난바에서 엔화거래를 했지만 급하게 필요할 땐 atm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.

귀국 전 택배 꼭 부치세요. 상자도 미리미리 구해놓는 편이 좋습니다. 귀국 전날 급하게 우체국에 갔더니 상자가 작은 것 밖에 없어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. (다행히 집주인한테 얻었습니다)

선박은 13키로에 5000엔정도라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고 3주정도 걸렸는데, 추가요금 내가면서 다 들고 오느니 부치는게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. 액체류는 거절당하는 것 같으니 주의하시고 택배 애써 꼼꼼히 싸 놓은 걸 다 뜯고 하나하나 확인하니 테이프로 딱딱 싸매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(분량 자유)

약 9개월 간의 기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일본생활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.

물론 국제센터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었고 4학년이기에 교환학생을 가기보단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이 좋지 않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기에 짧은 반 학기보다는 1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

공부도 좋고 취업준비도 좋지만 여러 외국인들과 만나 소통하고 외국의 문화를 자세히 경험하는 기회는 흔치 않기에 일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외국에서 생활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오사카 성 벚꽃놀이



교토 여행 중 호센인



유니버설스튜디오 재팬



크리스마스 파티



오키나와 치넨미사키 공원



케라마제도 스쿠버다이빙